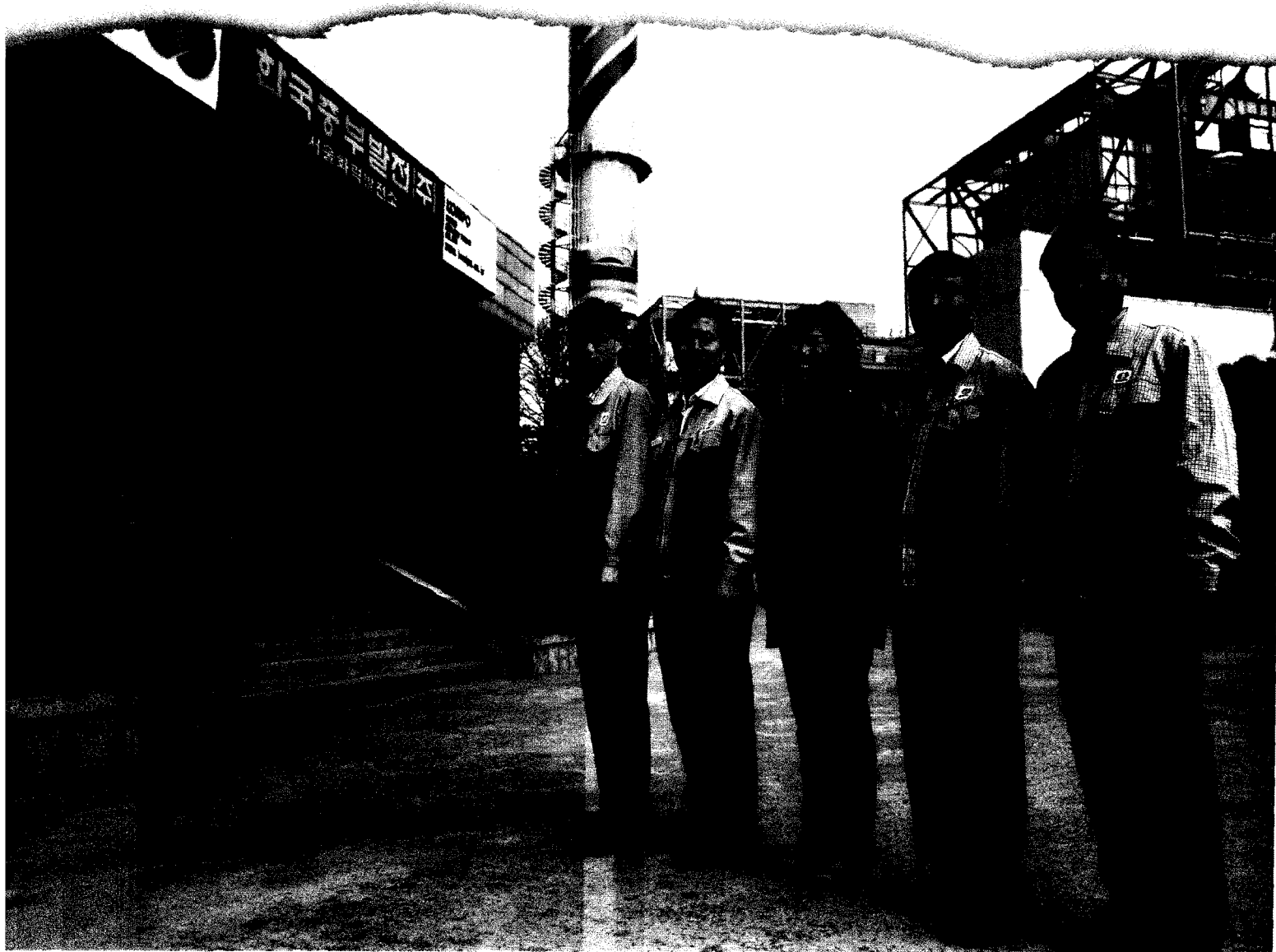


무재해 20배 달성, 안정적인 전력과 난방열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국중부발전(주) 서울화력발전소

최근 전력산업은 세계경제의 극심한 침체로 인해 매우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이 사소한 안전사고로 인해 한 순간 무위(無爲)로 돌아간다면 더 어려운 현실에 부딪치고 말 것입니다. 저희 서울화력발전소의 모든 임직원은 철저한 안전의식을 바탕으로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취재 | 임재근 기자





28년, 여러 악조건을 극복하고 무재해 20배 달성

서울특별시 마포구 당인동에 위치한 한국중부발전(주) 서울화력발전소는 당인리발전소로 잘 알려진 우리나라 최초의 화력발전소로 제4호기가 준공된 1971년 당시에는 서울시 전력수요의 75%를 담당하며 우리나라 산업발전의 견인차로서 그 소임을 다해 왔다. 현재는 제4, 5호기 총 설비용량 387,500kW로서 수도권 전력공급은 물론, 국내 최초 열병합발전소로 여의도, 동부 이촌동, 반포, 마포지역의 5만여 세대에 난방열과 온수를 공급함으로써 소규모 개별난방에 따른 대기오염을 저감시키는 한편, 에너지 손실을 최소화

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그 역할을 다하고 있다. 1993년부터는 발전연료로 사용해 온 유류를 천연가스로 전환하고 2002년에는 질소산화물 저감설비를 설치하여 대기환경오염 수치를 10분의 1로 낮추는 등 환경을 지키는 노력도 게을리 하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난 2008년 12월 31일로 28년(10,283일) 동안 단 한 건의 산업재해도 발생하지 않아 무재해 20배수를 달성하였다. 이는 서울지역 제조업 분야 중 최초이며, 중부발전 중에서도 처음이다. 이는 근로자의 안전과 설비안전에 최우선 가치를 두고 그간 노력해 온 성과라 할 수 있다.

어려움을 극복하고 무재해 달성

1980년 11월 7일 무재해 개시 보고 이후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특히 설립 당시 탄을 기본 원료로 한 화력발전소에서 1980년 저유황유로, 다시 1993년 천연가스로, 이후 국내 최초 열병합 발전소로의 전환 등 수많은 공사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위험을 극복하고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재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은 서울화력의 모든 임직원들이 혼

연일체가 되어 재해예방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기에 가능했다. 또한 재난재해대비 위기관리 체계 확립, 안전보건교육 내실화, 취약시기 안전관리 활동 강화, 노사합동 안전보건행사 활성화,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 등 끊임없이 근로자의 건강과 작업장에서의 위험요소를 제거하려는 노력이 오늘날 무재해 사업장 구축에 원동력이 되었다.

안전 3진 아웃제도와 안전실천다짐 서명서

안전 3진 아웃제도란 계획예방정비 공사 및 일반공사 시행 시 그리고 현장



▶ 장세준 품질안전팀 팀장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안전에 최선을..

자신의 소중한 생명을 스스로 지키는 것이야말로 부와 권력 그 어떤 명예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개개인의 생명을, 건강을, 안전을 지키는 자율안전의식이 자리 잡는다면 우리 사업소의 무재해 행군은 영원히 이어질 것이며, 시간이 흘러 2012년 무재해 23배수 달성 때 다시 한 번 이 기쁨을 만끽하고 싶습니다.



▶ 최재일 품질안전팀 팀원

무재해 20배 달성, 새로운 출발점

지난 28년 동안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은 지금 이곳에서 근무하고 있는 우리 모두의 자랑스러운 자부심입니다. 하지만 잠시라도 자만한다면 그 동안의 노력이 바래 질 수 있는 만큼, 다시 시작이라는 마음으로 안전의식을 확고히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송기현 품질안전팀 팀원

사람이 중심이 되는 서울화력발전소를 만들어 갈 터..

안전의 기본은 바로 인간존중 이념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학기술의 발달로 설비 부분에서는 자동화로 인한 조작의 편의성 등이 향상되어 사고의 위험은 점차 줄어들고 있지만 여전히 가장 핵심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역시 인력이 중요한 만큼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 안전 지킴이로서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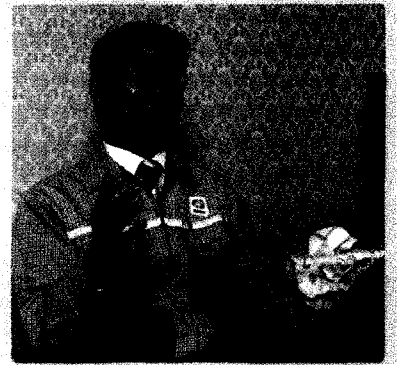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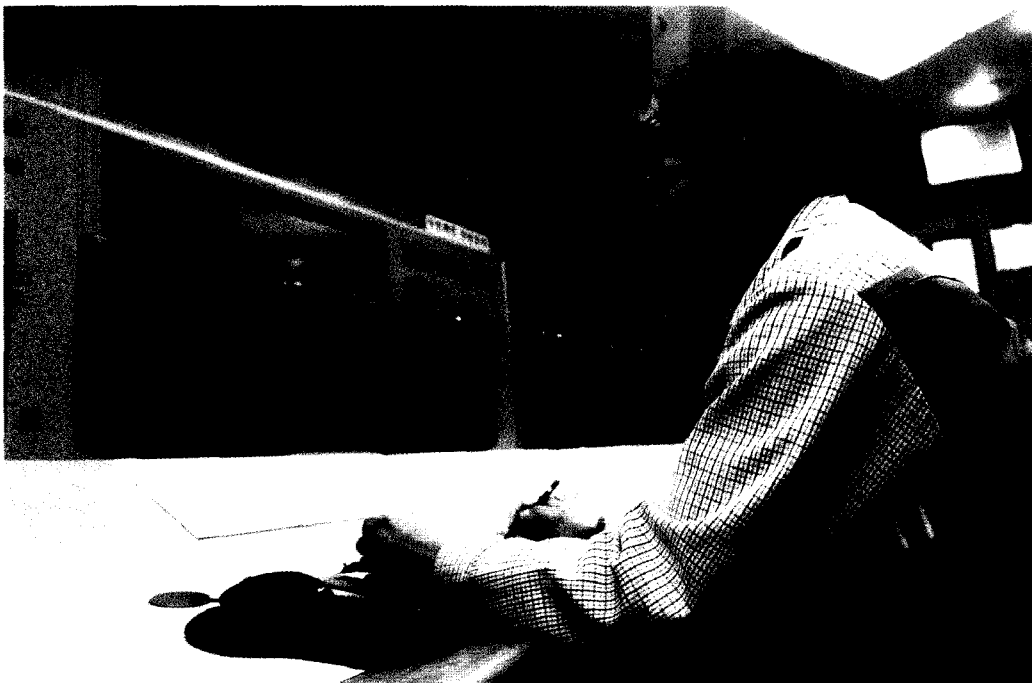


순회점검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개인보호구 미착용자나 안전수칙 위반자에 대한 경고 조치로 서울화력발전소 직원과 도급업체, 2개 분류로 구분하여 시행되고 있다. 직원의 경우 1회 적발될 시 주의, 2회 적발 시 경고, 3회 적발 시 인사 조치를 포함한 징계가 내려지게 된다. 도급업체인 경우 1회 적발 시 해당 업체 전원 당일 출입금지, 2회 적발 시 3일 출입금지, 3회 적발 시 자격정지 등 안전에 대한 의식 강화와 기초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강력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 밖에도 연간 2회 산업 안전보건강조기간을 설정하여 운영하고 안전

보건 11대 기본수칙 준수를 위한 안전결의대회 시 전 임직원이 실천다짐 서명서에 서명을 한 후 사무실에 비치하는 등 안전의식 함양에도 노력하고 있다.

철저한 안전사고 예방활동과 안정적 전력공급

대부분의 안전사고는 안전 규정과 원칙을 무시하는 곳에서 발생한다. 사소한 안전수칙 위반이 때에 따라서는 대형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서울화력발전소는 예고되지 않은 대형 재난·재해 예방을 위해 사전 안전점검과 철저한 예방조치를 시행하고 관리감독자 책임중심의 현장안전관리 활동을 적극 전개해 나감으로써 앞으로도 수도권 전력과 난방열 공급에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다. ☺



박형구 소장
한국중부발전(주) 서울화력발전소

안전사고는 나 개인의 불행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인리히 재해 연쇄성의 원리에 의하면 "300건의 이상 징후는 29건의 작은 실수를 낳고 이러한 실수가 1번의 큰 사고로 이어진다."라고 합니다. 사소한 실수나 이상 징후를 그대로 지나치지 말고 깊은 관심을 갖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안전사고는 나 개인의 불행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물론이거니와 나의 가족에게 큰 고통과 아픔을 안겨줄 뿐 아니라 나아가 국가 경제와 사회 전반에 커다란 영향을 준다는 것을 명심해야겠습니다. 저희 서울화력발전소는 수도권의 안정적인 전력과 열공급을 위해 3무(무재해, 무사고, 무상해)운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감으로써 안전한 사회 건설에 이바지하겠습니다.